

#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와 정책 시사점

**한원태**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부연구위원 (hanwontae@kiep.go.kr, 044-414-1358)

**정영식**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위원 (ysjeong@kiep.go.kr, 044-414-1141)

**임희동** 국제거시금융실 국제금융팀 연구원 (hdlim@kiep.go.kr, 044-414-1223)

**김승현** 세계지역연구센터 일본동아시아팀 전문연구원 (shkim@kiep.go.kr, 044-414-1035)



## 차 례

1.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요
2.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의 의미
3. 정책 시사점

## 주요 내용

- ▶ 2023년 6월 29일 개최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양국은 한·일 통화스와프를 재개하기로 합의함.
  - 한·일 간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 중단된 이후 약 8년 만에 재개된 것으로, 양국이 합의한 통화스와프는 달러 기반(달러-원/엔)이며, 규모는 100억 달러임.
- ▶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의 의미]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는 △ 한·일 간 금융협력 복원 △ 한국의 금융안전망 확충 △ 금융시장 불안 시 시장 안정에 일조 등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한·일 간 금융협력 복원] 한·일 간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 규모에서 시작하여 2011년 7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되면서 양국간 금융협력 체제 구축의 역할을 해왔으나, 2012년 이후 지속되어온 한·일 갈등이 경제, 금융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2015년 2월 이후 중단됨. 이번의 한·일 통화스와프 합의는 두 국가간 금융협력의 재개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음.
  - [한국의 금융안전망 확충]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 합의로 주요 국제통화 발행국과의 통화스와프 대상이 4개국(스위스, 호주, 캐나다, 일본)으로 확대되었으며, 자국통화-달러 기반 스와프로 체결됨에 따라 비상 시 한국이 활용할 수 있는 금융안전망이 확대되었다는 의의가 있음.
  - [금융시장 불안 시 금융시장 안정에 일조]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한국의 경우 양자간 통화스와프 체결은 완화강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합의가 국내외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발표되어 금융시장에서 유의할 만한 변화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음.
- ▶ [정책 시사점]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로 양국간 금융협력이 복원됨에 따라 향후 양국 금융협력을 보다 확대하고 외환·금융 분야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중요하며, △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 통화스와프 자금의 활용도 제고 △ 금융거래 확대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과거 한·일 간 통화스와프 사례를 통해 볼 때, 양국간 통화스와프 규모가 확대되고 스와프 체결 통화가 원/엔 자국통화로도 확대될 여지가 있음.
  - [통화스와프 자금의 활용도 제고] 한·일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안전망이지만, 한·중 통화스와프 사례와 같이 한·일 양국의 무역결제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금융거래 확대] 한·일 간 금융투자 확대 등 양국간 금융거래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일례로 이번 재무장관회의에서 상호금융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한바, 한국의 사무라이채 발행 및 일본의 한국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금융거래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1.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요

### ■ 2023년 6월 29일 한·일 양국 재무장관은 일본 도쿄에서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함.

- 한국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일본의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성 장관은 6월 29일 일본 도쿄 소재 재무성에서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함.
  - 이번 재무장관회의는 2016년 8월 7차 회의 이후 약 7년 만에 성사된 것임.
- 한·일 양국 재무장관은 회의 직후 기자회견 및 공동문서 발표 등을 통해 회의의 주요 내용과 성과를 강조함.<sup>1)</sup>

### ■ 이번 8차 재무장관회의에서는 양국간 통화스와프 협정 외에도 △ G20·G7 및 ASEAN+3 협력 △ 제3국 인프라 협력 △ 기타 양자간 협력방안이 논의됨(표 1 참고).<sup>2)</sup>

-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한·일 양국 재무장관은 1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재개에 합의함.
  - 한·일 간 통화스와프는 2015년 2월 협정이 종료된 이후 약 8년 만에 재개된 것임.
- [다자간 협의체를 통한 협력] 저소득 국가의 채무 문제, 신흥국의 클린에너지 관련 협력 등 국제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대해 G20, G7 및 ASEAN+3 차원에서 협력해나가기로 함.
  - [G20 및 G7] 한·일 양국은 저·중소득국의 채무 문제와 관련하여 G20 차원에서 기울이는 일련의 노력을 지지함과 동시에 이에 기여하기로 함. 또한 제48차 G7 정상회의('23. 5 개최)에서 논의된 'RISE(공급망 강화 파트너십)'의 신속한 설립과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함.
    - \* RISE(Resilient and Inclusive Supply-chain Enhancement Partnership): G7에서 추진 중인 신흥국의 클린에너지 개발 지원 프로젝트
  - [ASEAN+3] CMIM(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를 강화하기 위해 재원구조 개편, 신규 긴급금융 프로그램 도입 등 제도 개선 논의에 협력하기로 합의함.
- [제3국 인프라 협력]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 간 MOU를 체결함. 이번 MOU를 통해 양 기관은 축적된 지식·경험을 공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등 제3국에서의 인프라 개발 및 공급망 확립,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함.
- [기타 양자간 협력] 그 밖에도 관세, 조세, 인적교류, 상호금융투자 분야 등의 협력을 논의함.
  - [관세] 제32차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2023년 하반기에 개최하고, 이 회의에서 대러·대북 제재의 이행, 국경 간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제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함.
  - [조세] 국제 과제 관련 협력 강화를 목표로 정기적인 논의를 개최하기로 함.
  - [인적교류] 상호간 이해를 바탕으로 한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보다 긴밀하게 양국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재무당국간 단기 인적교류 프로그램을 개시하는 데 의견을 같이함.
  - [상호금융투자] 한국경제 설명회 등 상호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울이는 한국 측의 정책적 노력에 대해 일본 재무당국은 환영함.

1) 기획재정부(2023. 6. 29), 「한일 100억 달러 규모 통화 및 교역(스와프) 체결」 및 일본 재무성, 「第8回日韓財務対話プレスリリース令和5年6月29日」, 2) 위의 자료.

표 1.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주요 논의 내용

분야	주요 내용
세계경제 및 역내 상황	· 세계경제 및 역내 경제가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플레이션 압력 등에도 불구하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을 인식 · 다만 세계경제 전망에 불확실성이 있으며, 경제성장과 금융안정을 위해 민첩한 정책적 대응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
G20 및 G7 협력	· G20 논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공조 의지 확인 · 저·중소득 국가의 채무 조정 등을 위한 G20 차원의 노력을 지지 · 제48차 G7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공급망 파트너십(RISE) 설립 및 이행 관련 협력
제3국 인프라 협력	· 한국의 수출입은행과 일본의 국제협력은행(JBIC) 간 MOU 체결 · 양 기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하여 제3국의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및 공급망 구축, 글로벌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
통화스와프 재개	· 100억 달러 규모의 미국 달러화 기반 통화스와프 재개에 합의
역내 금융협력	· ASEAN+3에서 CMIM 신속금융 프로그램을 설립하고, 기존 출자방식 재원구조의 장단점 분석 등을 포함해서 로드맵 개발을 촉구 · 자연재해에 따른 잠재적 손실에 대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역내 재해위험금융 관련 논의를 촉진하는 데 동의
기타 협력	· 연내 제32차 한일관세청장회의 개최 예정(대리·대북 제재 이행, 전자상거래 문제) · 국제 조세 관련 정기적인 논의를 개최하는 데 합의(국제 조세 관련 협력 강화) · 경제정책에 대한 상호이해 증진 및 직원간 연대 강화를 위해 양국 부처간 단기 직원 교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합의 · 상호 금융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며, 상호금융투자 활성화를 위한 한국 측의 정책적 노력(한국경제 설명회 등)을 환영 등

자료: 기획재정부, 일본 재무성 등 보도자료 정리.

■ 이하에서는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 개최 전부터 주목받았던 주요 의제인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와 관련하여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2.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의 의미

### 가. 한·일 간 금융협력 복원

■ 2015년에 중단되었던 한·일 통화스와프가 재개됨에 따라 양국간 금융협력의 틀이 마련됨.

- 한·일 통화스와프는 2001년 20억 달러 규모에서 시작하여 2011년 700억 달러 규모까지 확대되며 양국간 금융협력 체제 구축의 역할을 해왔음.
  - 2001년 7월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sup>3)</sup> 체제 구축에 따라 달러-원화 일방향<sup>4)</sup> 형태로 20억 달러 규모의 한·일 양국 중앙은행간 통화스와프가 최초로 체결되었으며, 이 협정은 2006년 2월에 100억 달러 규모로 확대 및 연장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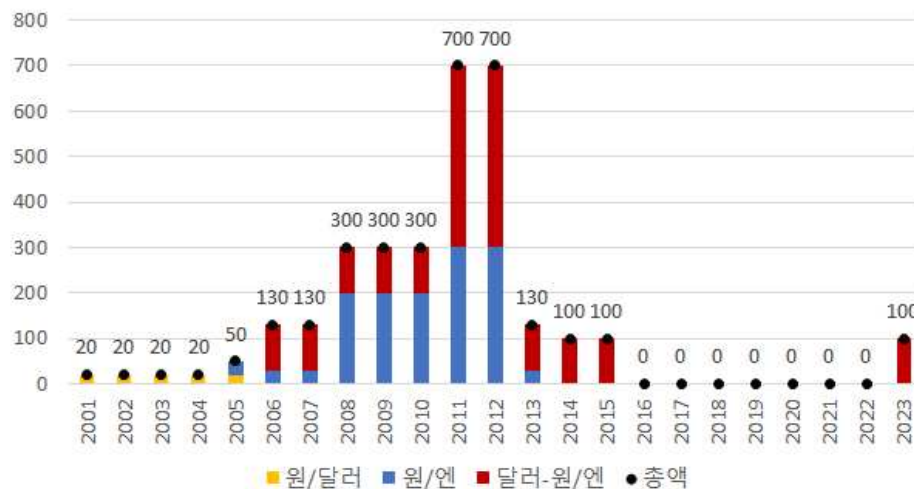
3)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중·일, 그리고 아세안 국가들이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자구책의 일환으로 2000년 5월 태국 치앙마이에서 양자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함.

4) 한국이 원화를 맡기고 일본 보유 달러화로 차입하는 방식으로, 일본이 한국을 지원하는 일방향 형태임.

- 글로벌 금융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양국 중앙은행은 2005년 5월에 체결된 기존 30억 달러 규모의 원/엔 통화스와프를 2008년 12월에 2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함.
- 2011년 10월에는 유럽 내 재정위기 확산 우려에 따라 기존의 통화스와프 규모를 총액 700억 달러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면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을 도모하였음.
- \* 한국은행은 기존 100억 달러 규모의 CMI 통화스와프(달러-원/엔 방식)와 더불어 기존 원/엔 통화스와프(2008년 12월) 규모(200억 달러)를 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하고, 일본 재무성과 달러-원/엔 스와프도 300억 달러 규모로 신규 체결함.<sup>5)</sup>
- 이후 지속되던 양국간의 통화스와프가 2015년 2월에 모두 종료되었고, 최근까지 양국간의 통화협력 체제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음.
  - 2012년 이후 지속된 한·일 외교 갈등이 경제, 금융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쳤기 때문임.
- 한·일 양국은 이번 제8차 한·일 재무장관회의에서 합의한 양국 통화스와프에 대해 “두 국가간의 금융협력 재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발표함.<sup>6)</sup>
  - 100억 달러 규모의 달러-원/엔 방식 체결로 합의됨에 따라 외화유동성 안전망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이번 통화스와프 계약을 시작으로 역내 금융협력 체제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sup>7)</sup>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힘.

그림 1. 한·일 통화스와프 추이

(단위: 억 달러)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 6. 29) 기반으로 저자 작성.

5) 한국은행(2016), 「한국의 외환제도와 외환시장」.

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 6. 29).

7) CMIM은 기존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형태로 역내 자체적인 금융협력 체제였던 'CMI'에서 2010년 3월 역내 국가들(한·중·일, 아세안) 다자간 통화스와프 형태로 발효되어 지속적으로 개정되었음. 현재 2,400억 달러 규모이며, IMF와 연계 없이 지원 가능한 'IMF 비연계' 비중이 40%로, 역내 위기 상황에서의 독자적 대응능력을 갖고 있음.

표 2. 한·일 통화스와프 경과

(단위: 달러)

체결일	규모	구성	종료일	방향	체결 기관	비고
2001년 7월	20억	원(韓)→달러(日)	2015년 2월	일방향	한·일 중앙은행	CMI 협정 추후 2006년 2월에 동 계약을 달러-원/엔 양방향으로 연장 및 확대 체결
2005년 5월	30억	원(韓)↔엔(日)	2013년 7월	양방향	한·일 중앙은행	신규 체결, 추후 2008년 12월과 2011년 10월에 동 계약을 연장 및 확대
2006년 2월	100억	원(韓)↔달러(日) 달러(韓)↔엔(日)	2015년 2월	양방향	한·일 중앙은행	CMI 협정 확대 및 기간 연장
2008년 12월	200억	원(韓)↔엔(日)	2010년 4월	양방향	한·일 중앙은행	과거 2005년 5월에 체결된 원/엔 스와프의 연장 및 확대 계약. 추후 2009년 3월, 10월에 연장
2011년 10월	300억	원(韓)↔엔(日)	2012년 10월	양방향	한·일 중앙은행	과거 2005년 5월에 체결된 원/엔 스와프의 연장 및 확대 계약
	300억	원(韓)↔달러(日) 달러(韓)↔엔(日)		양방향	한국은행-일본 재무성	
2023년 6월	100억	원(韓)↔달러(日) 달러(韓)↔엔(日)	2026년	양방향		양국 재무부간 재개 합의 상태

주: 1. 종료일은 체결일에 체결된 계약의 최종 종료 시점을 의미함.  
2. 체결 기관은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의 해당 보도자료들을 토대로 작성함.  
3. 2011년 10월 계약은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최대 700억 달러 규모까지 맡기고, 300억 달러 규모의 상대국 통화와 상대국 보유의 400억 달러를 동시에 차입하는 혼합 형태의 계약이었음.  
자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기반으로 저자 작성.

■ [한국의 평가]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는 단기적 외환시장 불안에 대한 대응보다, 경색되었던 양국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경제·금융 협력 진전의 틀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통화스와프의 규모는 크지 않으나 2019년 일본의 반도체 분야 수출규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등으로 경색되었던 한·일 관계가 최근에 개선되면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환·금융 협력의 상징으로 평가됨.<sup>8)</sup>
  - 2023년 5월 말 한국의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인 4,210억 달러<sup>9)</sup>로서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
  - 한·일 통화스와프는 단기적인 외환시장 불안에 대응하기보다 양국간 금융 협력의 진전이라는 의미로 평가
- 일본은 5개 기축통화들간 상설 통화스와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번 통화스와프 재개는 스위스 및 캐나다중앙은행과 체결한 통화스와프 계약과 함께 선진국간 외화유동성 안전망을 우리 금융·외환 시장까지 간접적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가짐.<sup>10)</sup>
- 한·일 통화스와프는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와 함께 엔화와 원화의 신인도를 높이고, 아시아 역내의 금융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sup>11)</sup>

8) 「한일, 100억불 통화스와프 체결... “외환·금융 확고한 연대”」(2023. 6. 29), 『연합인포맥스』.  
9) 한국은행 보도자료(2023. 7. 5).  
1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3. 6. 29).

■ [일본의 평가] 일본 내에서는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가 ‘양국간 관계가 개선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음.

- 회의 직후 일본 스즈키 재무성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일 양국간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간 대화 및 협력이 재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언함.<sup>12)</sup> 또한 “필요시 즉시 통화를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원화와 엔화에 대한 신용도 측면에서 플러스”라고 평가함.<sup>13)</sup>
- 일본 언론들은 한·일 양국 모두 달러가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고 하면서, 이번 통화스와프 협정은 양국간 경제협력 재개 등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평가하고 있음.<sup>14)</sup>
  - 한국의 경우 2023년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이 약 4,210억 달러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교하면 2배 이상의 규모이며, 일본의 외환보유액은 1조 2천억 달러임.

## 나. 한국의 금융안전망 확충

■ [한국]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 합의로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안전망이 확대됨.

- 이번 통화스와프 체결 합의로 한국은 국제통화 발행국(선진국)과의 통화스와프가 4개국(스위스, 호주, 캐나다, 일본)으로 확대되었으며, 한·일 통화스와프가 자국통화와 달러로 체결된 점은 금융안전망 확충 면에서 의미가 있음.
  - [스위스] 2018년 2월 9일, 한국은행과 스위스중앙은행이 100억 스위스프랑/11조 2천억 원의 양자간 자국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2021년 3월 1일, 양국간 금융협력 강화 및 금융시장 기능 활성화를 목적으로 연장계약 체결
  - [호주] 2014년 2월 23일, 원화/호주달러화 자국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50억 호주달러/5조 원(약 45억 미 달러) 이내에서 상호간 자금지원 시작, 2017년 2월 8일, 규모를 2배로 확대하여 100억 호주달러/9조 원(약 77억 미달러)으로 확대 연장 계약, 2020년 2월 6일, 스와프 규모를 다시 20% 확대하여 120억 호주달러/9조 6천억 원(약 81억 미달러)으로 확대, 2023년 2월 6일, 통화스와프 계약 5년 연장
  - [캐나다] 2017년 11월 16일, 한국은행과 캐나다중앙은행은 원화/캐나다달러화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 사전에 최고한도를 설정하지 않고 만기를 특정하지 않은 상설계약
- 이 외에도 한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UAE, 말레이시아, 튀르키예와도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상태임.
  - [중국] 2008년 12월 12일에 1,800억 위안/38조 원으로 CMI와 별도인 상호 자금지원 계약을 처음 체결한 뒤 2011년 10월 26일 3,600억 위안/64조 원으로 확대, 2014년 10월과 2017년 10월 연장한 뒤 2020년 10월 22일 4,000억 위안/70조 원으로 규모 확대
  - [인도네시아] 2014년 3월 6일 115조 루피아/10조 7천억 원의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2017년, 2020년 연장 후 2023년 3월 6일 기존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3년 연장
  - [아랍에미리트(UAE)] 2013년 10월 13일 200억 디르함/5조 8천억 원(약 54억 달러) 이내에서 통화스와프 계약, 이후 2016년 10월 12일에 만료된 뒤 2019년 4월 13일에 200억 디르함/6조 1천억 원으로 재계약 체결, 이후 2022년 4월 13일에 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연장

11) 위의 자료

12) 「日韓通貨スワップ再開へ 8年ぶり」(2023. 6. 30), 「朝日新聞」.

13) 「近づく日韓、通貨スワップ協定再開 8年ぶり、融通枠1.4兆円 財務対話「金融・経済協力の象徴」」(2023. 6. 30), 「日本経済新聞」.

14) 각주 13,14의 아사히 신문 및 닛케이.

- [말레이시아] 2013년 10월 20일 150억 링깃/5조 원(약 47억 달러) 이내에서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2017년 1월 25일과 2020년 2월 3일에 동일한 계약으로 연장
- [튀르키예] 2021년 8월 12일 한국은행과 튀르키예 중앙은행 간 175억 리라/2조 3천억 원 3년 만기의 양자간 자국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

표 3. 한국의 양자간 통화스와프 체결 현황

주요 내용	체결 국가								
	일본	중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호주	UAE	말레이시아	튀르키예	캐나다
계약일	2023.6.29	2020.10.22	2021.3.1	2023.3.6	2023.2.6	2022.4.13	2020.2.3	2021.8.12	2017.11.16
만기	2026.6.28	2025.10.10	2026.3.1	2026.3.5	2028.2.5	2027.4.12	2023.2.2	2024.8.11	상설
사용 통화	자국통화 ⇄ 미 달러	위안 ⇄ 원	스위스 프랑 ⇄ 원	루피아 ⇄ 원	호주 달러 ⇄ 원	디르함 ⇄ 원	링깃 ⇄ 원	리라 ⇄ 원	캐나다 달러 ⇄ 원
스와프 규모 (상한액)	100억 미 달러	4,000억 위안/ 70조 원 (약 590억 미 달러)	100억 스위스 프랑/ 11.2조 원 (약 106억 미 달러)	115조 루피아/ 10.7조 원 (약 100억 미 달러)	120억 호주 달러/ 9.6조 원 (약 81억 미 달러)	200억 디르함/ 6.1조 원 (약 54억 미 달러)	150억 링깃/ 5조 원 (약 47억 미 달러)	175억 리라/ 2.3조 원 (약 20억 미 달러)	상한 미설정

자료: 기획재정부 및 한국은행 보도자료를 취합하여 저자 작성.

■ [일본] 미국, 영국, 유로존, 캐나다, 스위스와 이미 상시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어 있어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에 따른 일본의 금융안전망 확대 의미는 한국에 비해 크지 않음.

- 일본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미국, EU, 영국, 캐나다 등 G7 국가 및 스위스와 중앙은행간 달러 유동성 스와프가 상설화된 이후 사실상 달러를 필요시 조달할 수 있게 됨.<sup>15)16)</sup> 이에 따라 현재 달러가 시급한 상황은 아니라는 평가임.
- 참고로 2022년 2월 기준 일본은 아시아 역내 6개국과 양자간 달러 기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발효중임(표 4 참고).
  - 일본은 2020년에는 말레이시아와 양자간 협정을 체결한 데 이어 2021년에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과의 기존 통화스와프 협정을 개정(연장)하였고, 2022년에는 필리핀·인도와의 협정도 개정하여 현재 총 6개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상태임.<sup>17)</sup>
  - 일본이 이들 국가와 체결한 통화스와프는 당사국 상호간에 미국 달러와 자국 화폐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15) 日本銀行(2013), 「中央銀行間スワップ取極の常設化について」.

16) 2013년 10월 일본은행이 G7 국가 및 스위스 중앙은행과 체결한 중앙은행간 상시 유동성 스와프는 각 중앙은행이 각국 시장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임.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미국 주도로 G7 국가 및 스위스 중앙은행이 한시적으로 실시한 달러 스와프에서 시작하여, 약 세 차례 이상 연장되었다가 2013년 10월 상설화됨. 이후 일본은 미 연준과 한 차례, 캐나다 은행과 두 차례, 잉글랜드 은행과 두 차례, ECB와 두 차례, 스위스 중앙은행과 두 차례 등 상대국 통화와 교환하는 형태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함(아홉 차례 협정 모두 스와프의 유효기간과 인출한도액을 설정하지 않음).

17) 일본이 체결하는 통화스와프는 크게 ① G7 국가 및 스위스 중앙은행과 체결하는 상시 통화스와프(상대국 통화와 교환) ② 일본은행이 재무성 장관의 대리인으로서 체결하는 통화스와프(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금융협력 차원에서 실시하며 주로 미 달러와 상호간의 통화를 혼합하여 실시) ③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일시적으로 상대국 통화가 필요시 실시하는 스와프 등이 있음. 본고에서는 일본은행이 이전 한국과 체결한 바 있는 통화스와프를 ②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②의 통화스와프 위주로 일본의 기체결 통화스와프를 소개함.



- \* 일본-인도네시아 간 통화스와프는 인도네시아가 일본에 요청하여 미국 달러 혹은 일본 엔화를 수령하고 일본은 인도네시아 루피아화를 받는 일방형 통화스와프이며, 그 외에는 모두 양방향 통화스와프임.
- 일본의 경우 양자간 달러 기반 통화스와프를 체결할 때 재무성 장관의 관할하에 있는 외국환특별회계 달러 자금을 활용하기 때문에 재무성이 협상 및 계약을 주도하며, 일본은행은 재무성 대리인 자격으로 상호간 계약문서 교환 시에 관여함.<sup>18)</sup>

표 4. 일본의 기체결 양자간 통화스와프 협정의 주요 내용

주요 내용	체결 국가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
계약 당사자	(일본) 재무성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일본) 재무성 (필리핀) 중앙은행	(일본) 재무성 (싱가포르) 통화감독청	(일본) 재무성 (태국) 중앙은행	(일본) 재무성 (말레이시아) 중앙은행	(일본) 재무성 (인도) 준비은행
계약일	2021.10.14	2022.1.1	2021.5.21	2021.7.23	2020.9.18	2022.2.28
일방/양방향	일방향 (일본→인도네시아)	양방향	양방향	양방향	양방향	양방향
사용 통화	미국 달러 or 일본 엔 ⇔ 인도네시아 루피아	(필리핀 요청 시) 미국 달러 or 일본 엔 ⇔ 필리핀 페소  (일본 요청 시) 미국 달러 ⇔ 일본 엔	(싱가포르 요청 시) 미국 달러 or 일본 엔 ⇔ 싱가포르 달러	(태국 요청 시) 미국 달러 or 일본 엔 ⇔ 태국 바트  (일본 요청 시) 미국 달러 ⇔ 일본 엔	(말레이시아 요청 시) 미국 달러 ⇔ 말레이시아 링깃  (일본 요청 시) 미국 달러 ⇔ 일본 엔	(인도 요청 시) 미국 달러 ⇔ 인도 루피  (일본 요청 시) 미국 달러 ⇔ 일본 엔
스와프 규모 (상한액)	일본→인도네시아 227.6억 달러	일본→필리핀 120억 달러	일본→싱가포르 30억 달러	일본→태국 30억 달러	일본→말레이시아 30억 달러	일본→인도 750억 달러
	-	필리핀→일본 5억 달러	싱가포르→일본 10억 달러	태국→일본 30억 달러	말레이시아→일본 30억 달러	인도→일본 750억 달러

주: 2022년 2월 28일까지 체결되었으며, 현재 유효한 협정.

자료: 일본 재무성, 「アジア諸国との二国間通貨スワップ取極」. 재인용.

## 다. 금융시장 불안 시 금융시장 안정에 일조

■ 한국의 경우 양자간 통화스와프 체결은 전반적으로 원화강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의 경우 외환시장 안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sup>19)</sup>

- 2020년 3월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체결된 미 연준과 한국은행 간의 통화스와프가 국내 외환시장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17개 비교대상 국가와 우리나라를 통화스와프 이벤트 전후로 비교하는 이중차분 전략을 사용함.

18) 日本銀行, 「海外中銀との協力」, [https://www.boj.or.jp/intl\\_finance/cooperate/index.htm](https://www.boj.or.jp/intl_finance/cooperate/index.htm)(검색일: 2023. 7. 4)

19) 윤영진(2021),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의 국내 외환시장 안정 효과」, 『경제학연구』, 제69집 제3호, pp. 179~210.

- 분석 결과, 환율은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발표 효과로 당일 3.3%, 이후 2주간 평균 2.1%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 캐나다, 중국 등과의 통화스와프 체결 및 만기 연장 역시 원화강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sup>20)</sup>
- 통화스와프 체결의 원화 환율에 대한 영향을 사건 연구(event study)를 통해 실증분석한 결과, 한·캐나다 통화스와프 체결,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이벤트는 원화가치의 두드러진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나, 한·스위스 통화스와프 체결의 경우에는 원화가치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2017년 10~11월(한·캐나다 통화스와프 체결,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 연장) 두 달간 원화가치의 누적 초과수익률은 전반적으로 4.69~6.11%p를 기록함.

■ 이번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합의가 국내외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발표되어 금융시장에서는 특이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 통화스와프 재개 발표 이후 원화와 엔화는 달러화에 대해 소폭 절상되었으나,<sup>21)</sup> 이는 같은 기간 달러화 약세<sup>22)</sup>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그림 2. 달러인덱스와 원/달러 환율 추이



그림 3. 달러인덱스와 엔/달러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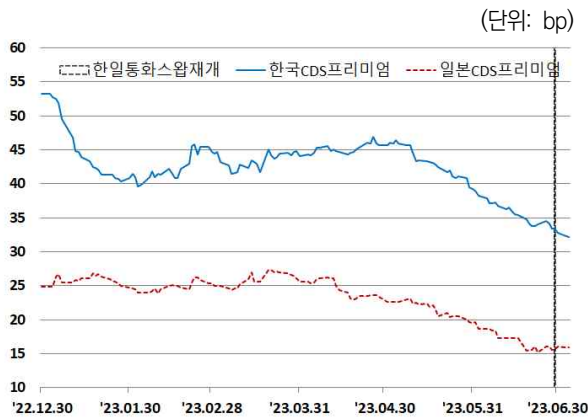


주: 2023년 6월 29일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발표.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3. 7. 5).

- 한국의 주가지수와 CDS 프리미엄에도 국제금융시장의 흐름이 반영되며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발표에 따른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보임.<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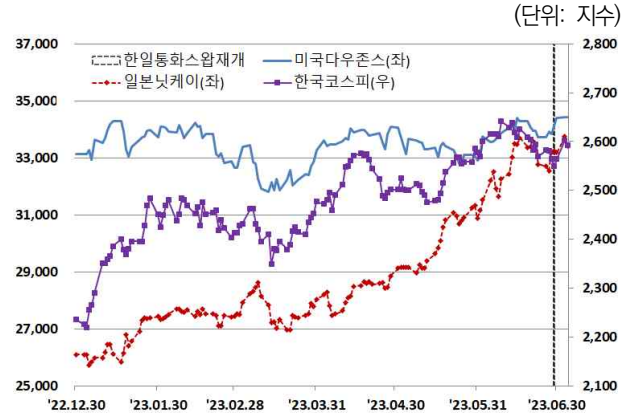
20) 정영식 외(2018. 5. 23), 「금융안전망 및 외환정책 투명성 제고의 의미와 영향」,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8, No. 17.  
21) 6월 29일 대비 원화가치는 1.24% 절상(7월 4일 기준): (6.29) 1,317.50 → (6.30) 1,317.75 → (7.3) 1,308.05 → (7.4) 1,301.30원.  
엔화가치는 6월 29일 대비 0.20% 소폭 절상(7월 4일 기준): (6.29) 144.76 → (6.30) 144.31 → (7.3) 144.68 → (7.4) 144.47엔.  
22) 6월 29일 대비 달러화지수는 0.29%하락(7월 4일 기준): (6.29) 103.34 → (6.30) 102.91 → (7.3) 102.99 → (7.4) 103.04.  
23) 한국 CDS 프리미엄 추이(bp): (6.29) 33.37 → (6.30) 32.71 → (7.3) 32.30 → (7.4) 32.20.  
한국 KOSPI 추이: (6.29) 2,550 → (6.30) 2,564 → (7.3) 2,602 → (7.4) 2,593.

그림 4. 한·일 CDS 프리미엄 추이



주: 2023년 6월 29일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발표.  
자료: Bloomberg(검색일: 2023. 7. 5).

그림 5. 한·미·일 주가지수 추이



### 3. 정책 시사점

■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로 양국 금융협력이 복원됨에 따라 후속으로 다양한 금융협력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향후 양국 금융협력을 확대하고 금융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중요해짐.

■ [통화스와프 규모 확대] 과거 양국간 통화스와프 사례를 통해 볼 때, 양국간 통화스와프 규모가 확대되고, 스와프 체결 통화가 양국 통화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 이번에 체결된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는 100억 달러로 2011~12년 700억 달러, 2008~10년 300억 달러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아 향후 한·일 통화스와프 규모가 확대될 여지가 있음.

- 이번 양국간 통화스와프는 100억 달러 모두 자국통화와 달러 간에 교환되는 계약으로, 자국통화간(원화와 엔화 간) 계약은 부재함.

○ 2005~13년의 한·일 통화스와프에서는 일부 계약 통화로 자국통화간(원화와 엔화 간) 계약이 포함

\* 금액 기준으로 적게는 약 30억 달러에서 많게는 300억 달러 상당, 전체 통화스와프 체결 금액 대비 비중 기준으로 적게는 23.1%에서 많게는 66.7%를 기록

■ [통화스와프 자금의 활용도 제고] 한·일 통화스와프는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금융안전망이지만, 한·중 통화스와프와 같이 한·일 양국의 무역결제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 향후 양국간 원·엔 통화스와프가 체결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방안임.

- 한국의 대일본 수출입에서 상대적으로 엔화 비중은 높은 반면 원화 비중은 매우 낮음.

○ 2022년 한국의 대일본 수출결제통화 중 엔화와 원화의 비중은 각각 40.6%와 5.5%, 수입결제통화 중 엔화와 원화 비중은 각각 46.4%와 6.1%

표 5. 한국의 대일본 수출입 결제통화별 비중 추이

(단위: %)

구분	결제통화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출	미달러화	50.1	46.8	45.8	51.2	53.7
	유로화	0.5	0.4	0.4	0.3	0.2
	엔화	44.1	47.4	48.3	43.5	40.6
	원화	5.3	5.3	5.4	5.0	5.5
	기타	0.0	0.0	0.0	0.0	0.0
	수입	미달러화	37.5	38.7	38.0	40.3
유로화		1.2	1.4	1.2	1.1	0.4
엔화		55.3	53.4	54.5	52.1	46.4
원화		6.0	6.3	6.1	6.3	6.1
기타		0.1	0.2	0.2	0.2	0.1

자료: 한국은행(2023. 4. 20), 「2022년 결제통화별 수출입(확정)」, 보도자료.

- 한·중 통화스와프를 양국간 무역결제자금으로 활용한 전례를 참고할 수 있음.
  - 한국은행은 2013년 1월 25일 「한·중 통화스와프 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 이용을 위해 한국은행과 외화대출 기본약정을 체결한 국내은행\* 중 외환은행에 대해 최초로 수출기업의 무역결제 지원을 위한 위안화 외화대출 (6,200만 위안)을 실시<sup>24)</sup>
  - \* 시중은행, 특수은행, 외인지점 등 총 12개 은행
  - 2014년 5월 30일 한국은행과 중국인민은행은 상호간 긴밀한 협력하에 「한·중 통화스와프자금 무역결제 지원제도」를 활용한 원화 통화스와프자금 대출을 중국 교통은행에 최초로 실시<sup>25)</sup>
  - \* 중국 교통은행은 한국의 우리은행과 연계하여 이 자금을 활용하여 중국소재 기업 앞으로 4억 원 규모(6개월 만 기)의 수입대금융 원화자금 대출을 실행

■ [금융거래 확대] 한·일 간 금융투자 확대 등 양국간 금융거래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한·일 간의 금융거래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sup>26)</sup>
  - 일본의 대한국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 총액은 233억 달러로 전체 자산의 0.47%를 차지하며, 일본과 상설 통화스와프 라인을 개설한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한국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sup>27)</sup>
  - 한국의 대일본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 총액은 293억 달러로 전체 자산의 3.65% 수준이며, 대일본 부채는 전체 부채의 3.15% 수준임.<sup>28)</sup>
- 이번 한·일 양국 재무장관회의에서 상호금융투자 활성화에 대해서도 논의한바, 양국 통화스와프의 무역결제자금 활용과 함께 한국의 사무라이채 발행 및 일본의 한국물 투자 확대 등 다양한 금융거래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한국정부는 사상 최초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 사무라이채권 발행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짐.<sup>29)</sup>
  - \* 사무라이채권은 일본 채권시장에서 외국 정부, 기업, 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엔화표시 채권을 지칭 **KIEP**

24) 한국은행 보도자료(2013. 1. 25).

25) 한국은행 보도자료(2014. 5. 30).

26) 글상자 1 참고

27) 2021년 12월 31일 IMF CPIS 데이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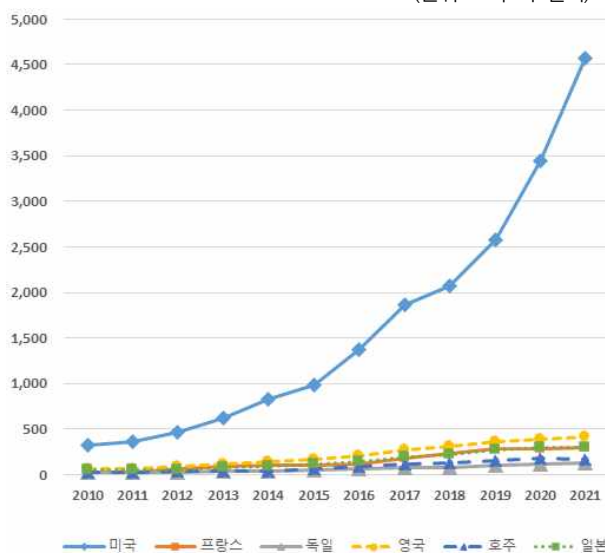
28) 위의 자료.

29) 「추경호 "사상 첫 엔화 외평채 발행 추진...韓기업 엔화채 마중물"」(2023.6.30), 「연합인포맥스」.

글상자 1. 한·일 포트폴리오 투자 현황(2021년 12월 31일 IMF CPIS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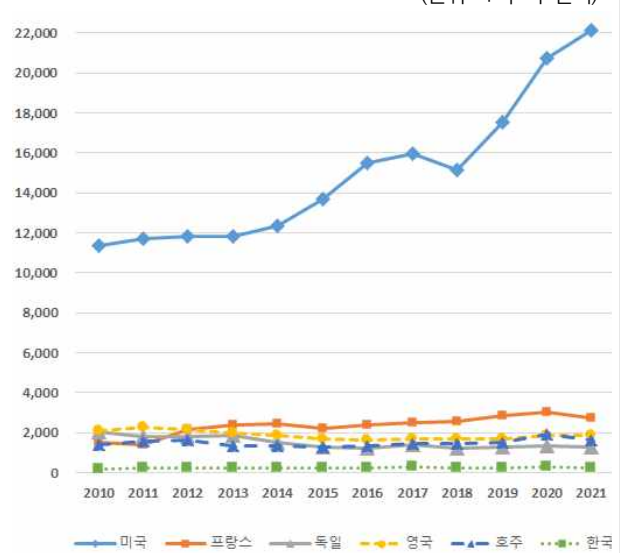
- 일본의 대한국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 총액은 233억 달러로 전체 자산의 0.47%를 차지함.
  - 일본과 상설 통화스와프 라인을 개설한 주요국들과 비교하여 한국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일본의 주요국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 현황: 미국 2만 2,166억 달러/44.72%, 프랑스 2,753억 달러 /5.55%, 영국 1,843억 달러/3.72%, 독일 1,252억 달러/2.53%, 캐나다 993억 달러/2.00%, 스위스 397억 달러/0.80%, 중국 361억 달러/0.73%
  - 일본의 대외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 추이에서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캐나다, 호주에 대한 투자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중국과 한국은 연도별 전체 자산에서 1% 미만의 수준을 보임.
  
- 반면 한국의 대일본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 총액은 293억 달러로 전체 자산의 3.65% 수준이며, 대일본 부채는 전체 부채의 3.15% 수준임.
  -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 역시 대미국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일본 포트폴리오 투자는 미국을 제외할 경우 대외 자산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한국의 주요국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 현황: 미국 4,568억 달러/56.92%, 영국 408억 달러/5.09%, 프랑스 303억 달러/3.78%, 중국 253억 달러/3.16%, 호주 172억 달러/2.15%, 캐나다 151억 달러 /1.88%, 독일 124억 달러/1.55%, 스위스 105억 달러/1.31%
  - 기간별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 추이에 따르면 한국은 2010년 이후로 북미, 유럽, 아시아 주요국에 대한 해외자산 투자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대일본 해외투자는 미국, 영국, 프랑스와 함께 상위 5개 국가에 속하는 수준임.

그림 6. 한국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  
(단위: 1억 미 달러)



자료: IMF CPIS(검색일: 2023. 7. 5).

그림 7. 일본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  
(단위: 1억 미 달러)



자료: IMF CPIS(검색일: 2023. 7. 5).